

金沢仏壇

歴史

文明3年(1471年)に蓮如上人が加賀と越前の境の吉崎で浄土真宗の布教をはじめた。加賀一円にその教えが広がった。各集落に道場が設けられるようになり、信仰の寄り合いの場となるとともに各地に御講ができ、仏壇の必要性も生まれた。

藩政時代に入って、金沢で仏壇が本格的に製造されるようになった。特に、3代藩主前田利常(17世紀後半)は、京都・江戸などから加賀藩細工所に名工職人を呼び、美術工芸の基礎を築いた。その後、多くの職人が住みつき、木地師、塗師、蒔絵師、彫刻師、金具師の完全分業体制で製作にあたるようになった。

特色

最大の特色は、加賀蒔絵の伝統を受けた上品な蒔絵の美しさと変色しないことである。また、木地は耐久性を重視し、骨組みはアオモリヒバを主に使い、柄[ほぞ]組で組み立てているため、堅牢な仕上がりとなっている。

木肌を生かした彫刻、加賀彫りの金具、障子の紗生地に金糸の刺繍、錆紐[さびひも]引きと呂色[ろいろ]仕上げ、蒔絵に施された象牙や青貝の象嵌、金箔を使った加飾等の豪華な仕上がりは美術工芸品の風格を兼ね備えている。



가나자와불단

역사와 특색

1471년에 렌노쇼닌이 가가와 에치젠의 경계에 있는 요시자키에서 정도진종을 포교하기 시작하면서 가가일대에 그 가르침이 퍼져나갔다. 마을마다 사람들이 신앙을 깊이는 도장이 설치되면서 불단의 필요성도 생겨났다.

17세기에 들어 가나자와에서 불단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17세기 후반, 3대 번주 마에다 도시쓰네는 교토와 에도에서 장인을 초청해, 가가의 미술공예의 진흥을 도모했다. 그 후 많은 장인이 가나자와에 살며, 녹로, 칠, 마키에, 조각, 쇠장식의 장인 등이 분업체제로 불단제작에 나서, 불단제작기술이 발달했다.

가나자와불단의 특징은 마키에를 사용한 우아함과 내구성 있는 재질이다.

▶ 情報 정보

主な生産地(주요 생산지)	金沢市(가나자와시)
主な製品名(주요 제품명)	仏壇(불단)
主な生産者(주요 생산자)	金沢仏壇商工業協同組合(가나자와불단 상공업 협동조합) 〒920-0855 金沢市武蔵町8-2瀬沢ビル3F(가나자와시 무사시마치 8-2 세자와 빌딩 3층) TEL (076)223-4914 FAX (076)232-6714 MAIL info@kanazawa-butsudan.or.jp http://kanazawa-butsudan.or.jp